

## 10월 선교소식

할렐루야 !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부아프리카 선교회 식구들과 교회들 그리고 모든 후원자들에게 탄자니아에서 10월 안부 올립니다.

후방에서 보내주시는 갖 가지의 가을의 풍경들을 보면서 세월 흐름을 실감합니다.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가을의 형형색깔들이 우리들의 인생 후반도 '아름답게 변해 가야 되지 않겠니?' 물어오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늘 놀라움이 넘치고 또 넘칩니다 (His wonder is full). 이 결실의 계절에 주님을 인하여 우리들의 삶도 놀라움이 넘치는 복이 임하길 기원 드리며 10월 소식을 나눕니다.

### @ 탕가 신학교 소식

오는 11월 18일 제16회 졸업식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모두가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3년제 졸업생 19명, 2년제 졸업생 2명 등 총 21명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탕가 신학교는 1999년 1월에 첫 학생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약 3백50 여명의 동문을 가진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설레는 가슴으로 첫 삼을 뜨고 신학교로서의 발판을 놓는 과정에 일어났던 초창기의 수많은 일들이 파노라마 처럼 지나갑니다. 특히 별판 같았던 곳에 \$5,000로 첫 삼을 뜨고 조그마한 건물을 세우고 삶의 터전을 그 곳으로 옮긴 첫 날 밤의 일들 (큰 칼을 들고 허술한 담장 주위를 맴돌던 달 빛에 비추인 불청객들로 인해서 마음 졸였던 일들)이 생각 납니다. 그런 곳이 지금은 탕가 외각 도시로 변했고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할 일 많은 주님의 선지동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졸업생들의 앞 길과 계속된 성장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리빙 스톤 중학교 소식:

#### 1) 2016년도 졸업식.

지난 1일(10월)에 제 2회 졸업식을 가졌고 지금은 11월 초 부터 시작될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국가고시 이전에 졸업을 해야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좀 특이하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국가고시는 상급학교로 진학하기위한 중요한 관문입니다. 밤 늦도록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90명의 4학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2017년도 신입생 모집 소식.

내년 신입생 2개반 50-60명을 선발하는 1, 2차 입학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약 300여명이 응시해서 약8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선착순 등록으로 입학할 하게 됩니다. 많은 숫자의 학생보다 교사 학생 비율을 낮추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알차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급사이즈를 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기독교 학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3) 2017년에 시작할 고등학교 소식.

그동안 기도 부탁 드렸던 소식입니다.

특히 리빙 스톤 고등학교는 과학에 중점을 둔 '과학고등학교'로 시작됩니다. 첫 해이기에 많은 학생들을 뽑을 수 없겠으나 준비 과정에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기도와 교사 확보, 그리고 과학 고등학교로서 현지 현안에 잘 부합하는 학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를 위해 경제적 지원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완공된 3층 과학관을 강의실과 실험실 장소로 구분하여 사용 하게 됩니다. 기숙사 공사도 현재까지는 속도에 맞추어 잘 진행되어, 얼마 전 3층 올리기 위한 슬라브 공사를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내년 3-4월 부터 사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지만 최선 다하면 일부 사용에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고등학교에 필요한 책상, 의자, 과학 실험 기자재 등 수업에 필요한 여러 학습 도구, 기숙사 내부 인테리어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특히 교사 영입 등 모든 세세한 준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국가 발전을 위한 거룩한 몸부림.

지난 해 12월 부터 시작된 새 정부의 국가 발전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탈세, 부정부패 척결, 도시 환경 청결 및 개선 등등의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댈 수 없을 만큼 화석화된 정치적 부패의 패턴들을 단 시간 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으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좋은 현상들이 현정부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난 날 대충대충 이론 속에서 일해 왔던 이들에게는 불편함이 많다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사역자들에게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애쓰는 일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이러한 불편함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러하더라도 저희와 사역지를 위해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리빙 스톤 2,4학년 학생들의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서.
2. 2017년 신입생들과 고등학교 시작 준비를 위해서
3.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4. 탕가 신학교 졸업식과 동문들의 사역을 위해서.

모두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을 되시고 환절기에도 늘 강건 하시길 기도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탄자니아에서 박윤석 선교사 가정 드림